

3D 피팅·AR 화장... 4차 산업혁명을 입고 바르다

2019 위기를 경영하라

7 진화하는 패션·뷰티업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초기 진입 ICT 접목 다양한 유통방식 선보여

10곳 중 9곳 관련 기술 활용 못해 초기 단계 불과... 집중 투자 필요

‘선택과 집중’. 국내 패션·뷰티업계의 최대 화두다. 패션도, 뷰티도 저성장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생존을 위한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국내 패션·뷰티업계에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이 급격히 몰아친 배경이다. 업계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는 한편, 첨단기술을 활용한 미래 먹거리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지난해 패션·뷰티업계는 불황 타파를 위해 대대적인 체질개선에 나섰다. 비효율 매장을 축소하고, 온라인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첨단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했다.

업계는 온라인 구매 소비패턴이 확산



LF가 선보인 가상 피팅 서비스 '마이핏'.



한섬의 자회사 현대G&F의 영캐주얼 브랜드 SJYP가 선보인 디노 후드티.

되는 데 주목하고,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사물인터넷(IoT)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AI가 디자인한 옷을 입고, 가상 메이크업·피팅으로 내게 맞는 제품을 찾는 시대가 현실이 된 것이다.

한섬의 자회사 현대G&F의 영캐주얼 브랜드 SJYP는 지난해 11월 AI가 디자인한 옷을 선보였다. 패션 AI 기술을 연

구·개발하는 스타트업 디자인노블과 협업해 제작한 '디노 후드티'다.

이 제품은 SJYP가 33만 여장의 브랜드 로고 및 캐릭터 이미지 등을 디자인노블의 AI 기술 '스타일 AI'에 제공하고, AI가 기존 브랜드 이미지와 어울릴 만한 스타일을 학습해 만든 결과물이다.

그런가하면 LF는 지난해 12월 3D 기술을 적용한 가상 피팅 서비스 'LF 마이

핏(My Fit)'을 국내 최초로 선보였다. 3D 소프트웨어 개발사 클로버주얼패션(CLO Virtual Fashion)과 협업을 통해 완성됐다.

'마이핏'은 사용자가 입력한 성별과 키, 몸무게, 체형 정보에 따라 만들어진 아바타에 가상 착장 모습을 구현하는 3D 피팅 서비스다. 온라인에서 가능하기 어려운 사이즈 적합도, 길이, 핏, 실루엣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기술 혁신의 바람은 온라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 고객 체험요소를 살리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스마트스토어'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이다.

올리브영이 제작한 오픈한 플래그십 스토어 강남본점에는 AR을 활용한 디지털 디바이스가 매장 곳곳에 배치돼 있다. 상품을 테이블에 올리면 제품 소개부터 홍보 영상까지 살펴볼 수 있는 스마트 테이블, 화장한 모습을 가상으로 볼 수 있는 가상 메이크업 앱, 피부 나이를 측정하고 필요한 제품을 추천해주는 스마트 미러 등이 대표적이다.

매장 운영에도 IT 기술이 접목됐다. 전자가격표시기(ESL), 스마트영수증 등이 그 예다. ESL은 전자 종이를 사용한 전자

가격표시기로 기존 종이 가격표의 단점을 보완하고 매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신개념 가격 관리 솔루션이다.

패션 브랜드로는 자라가 국내 일부 매장에서 AR 체험을 제공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패션·뷰티업계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초기화에 진입했다고 보고 있다. 현재까지 선보인 서비스들이 대부분 초기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외 시장에 비해 속도가 더딘 만큼 보다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 앞서 지난달 산업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섬유 패션기업의 약 91%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전혀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뷰티업계도 다를 바 없다.

윤준환 (주)코리아팩 연구소장은 지난해 10월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가 발간한 '주간기술동향 1869호 뷰티-ICT 적용을 통한 시장 경쟁력 확보 방안' 보고서를 통해 "뷰티-ICT 분야는 고부가가치의 커다란 미래 먹거리가 될 소지가 크다. 따라서 뷰티-ICT 분야의 가치를 어떻게 증진시킬지를 관련된 구성원 모두가 함께 연구한다면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서 기자 min0812@metroseoul.co.kr

삼바, IFRS에 맞춰 회계처리 3공장 수주물량 50%로 끌어올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국내 제약·바이오사들이 2019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바이오 코리아의 성장동력을 전 세계에 알렸다.

이 컨퍼런스는 1983년 이후 매년 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제약·바이오 전문 컨퍼런스로 전세계 450여개 기업에서 90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제약·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자리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은 9일 (현지시간) 컨퍼런스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분식회계 논란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 세계 최대 규모의 의약품위탁생산(CMO) 기업으로의 2019년 목표와 비전을 제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7년 한국 기업으로는 처음 메인 트랙(Main Track)을 배정받은 데 이어 올해는 가장 큰 규모의 발표회장인 '그랜드볼룸'을 배정받아 글로벌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김 사장은 이 자리에서 모든 회계처리를 IFRS 회계기준에 맞춰 적법하게 해왔으며, 이미 다수의 글로벌 회계법인을 통해 적법성을 인정 받은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 "1월 현재 27건의 CMO수주와 14건의 위탁개발(CDO)/임상시험수탁(CRO) 프로젝트 등 총 41건을 수주했으며, 현재 20개 이상의 기업들과 수주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올해 말까지 CMO는 12건, CDO/CRO는 10건 이상을 수주하고, 현재 총 생산규모의 25%까지 확보한 3공장의 수주물량을 연말까지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LG화학은 손자웅 생명과학사업본부장이 발표자로 나서, 중점 연구개발 분야인 대사질환, 항암·면역질환에서의 오픈이노베이션(혁신형 개방) 성과를 발표했다.

LG화학은 미국 큐바이오파마, 영국 아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이 9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2019년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박타, 한국 메디포스트 등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면역항암제, 세포치료제 등을 공동개발하고 있다. 특히 큐바이오파마와 공동개발 중인 면역항암제 'Cu e-101(후보물질명)'은 올해 임상 1상 진입이 기대된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국내 제약·바이오사들이 중국 진출 계획을 잇달아 밝히며 눈길을 끌었다.

한미약품은 권세창 대표이사는 "한미약품은 전세계 폐암 환자의 40% 이상이 거주하는 중국에서 포지티브의 독자 임상을 추진한다"며 "바이오신약 분야는 비만과 간질환 치료제(NASH)를 포함한 희귀질환 영역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으며, 이중항체 플랫폼 기술 '벤탐바디'가 적용된 신약은 올해 글로벌 임상이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한미약품은 차세대 비만 치료 신약(HM15136)의 임상 1상을 올 상반기 마치고 4분기 2상 진입을 예상하고 있다. 현재 치료제가 없는 지방간 치료제는 올해 3분기에 1상을 완료하고 4분기 중 임상 2상에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역시 중국에서 바이오·케미컬 의약품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세경 기자 seilee@

국내 입지 좁아져 해외진출 가속화 예상

2019 금융전망

6 저축은행 (끝)

지방경기 악화 장기화 우려 등 대출심사 강화 등 리스크 관리 신남방 국가 진출로 수익 모색

기해년 새해가 밝았지만 저축은행 업계의 표정은 어둡기만 하다. 가계부채 대책과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 각종 규제가 강화되면서 저축은행 업계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올해 저축은행은 내부로는 리스크 관리, 외부로는 해외진출을 확대해 수익을 제고할 방침이다.

◆리스크관리로 안정성 강화

주요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들은 올해 경영목표로 리스크관리를 꼽는다. 상반기부터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대손충당금 적립률상한 규제에 따른 수익악화 때문이다. 특히 최근 연체율도 상승세를 보이고 지방경기가 악화해 리스크 관리 강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들어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2017년 9월 말 1.9%에서 올해 9월 말 2.3%로 0.4%포인트 늘었고, 가계대출 연체율도 같은 기간 4.5%에서 4.7%로 0.2%포인트 늘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SBI저축은행의 올해 경영키워드는 리스크관리를 기본으로 한 내실경영이다. 임진구 SBI저축은행 대표는 2019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업계도 SBI저축은행도 모두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에 힘쓸 것"이라며 "안정적 내실경영이 목표"라고 말했다. KB저축은행도 과거부터 채무불이행(디폴트)된 대출을 분석, 유형을 세분화해 신용평가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이다.

구분	'17.9월	'17년말(A)	'18.9월(B)	증감(B-A)
총연체	4.8	4.6	4.6	-
기업대출	5.2	4.7	4.5	▲0.2
건설업	5.2	3.4	3.6	0.2
부동산업 및 임대업	3.2	2.2	2.8	0.6
PF대출	8.5	7.6	5.8	▲1.8
가계대출	4.5	4.5	4.7	0.3
주택담보대출	1.9	1.9	2.3	0.5
가계신용대출	6.6	6.1	6.5	0.5

웰컴저축은행은 통합 모바일 플랫폼 '웰컴디지털뱅크'를 확대하는 한편 대출심사 강화에 집중한다. 머신러닝(기계학습)에 기반한 데이터 분석기술을 CSS에 도입해 고객의 상환능력을 평가하고 방식이다. OK저축은행도 신용대출 심사에 한해서만 적용했던 머신러닝 기법을 지난해 해를 전제 가계대출로 확대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지방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 부실율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다"면서 "가계부채증가, 경기회복 지연은 차주의 연체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대출 전 심사를 강화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캄보디아·인니 등 신남방지역 진출 꺾걸음

규제가 심해지자 저축은행은 신남방 지역에도 눈을 돌리고 있다. 신남방 국가들의 성장성이 높은 데다 대부업을 청산하는 저축은행의 경우 수익다각화를 모색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동남아시아 10개국 연합(ASEAN, 아세안)은 평균 경제성장률 5.2%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아세안 국가들이 향후 10년 동안은 5%대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OK저축은행의 모회사인 아프로서비스그룹은 2016년 인도네시아 안다라뱅크(현 OK뱅크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의

프놈펜상업은행(PPCB)을 인수해 운영 중이다. 아프로서비스그룹은 내년 디나르뱅크와 OK뱅크 인도네시아를 합병해 현지 중대형은행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웰컴저축은행은 웰컴금융그룹을 통해 지난 2014년 필리핀과 캄보디아에 소매금융을 위한 현지법인을 설립했다. 지난해 웰컴금융그룹은 라오스에 오토바이, 리스 관련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리스사를 설립해 소매금융영업을 하고 있다.

JT저축은행과 JT천에서저축은행, JT캐피탈을 계열사로 둔 JT트러스트 그룹도 내년 5월 지분인수를 목표로 캄보디아 상업은행인 'ANZ 로얄은행' 인수작업을 진행 중이다. JT트러스트는 ANZ 로얄은행 지분 55%(41만2500주)를 ANZ Funds Pty(ANZF)로부터 취득할 예정이다

다만 저축은행 관계자는 신남방 지역 사업 여건이 녹록치 않아 지원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동남아 국가의 경우 외국 투자자본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고, 불안정한 정치상황 등 통제하기 어려운 현지시장의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국내의 출자 규제 등 규제 완화와 현지화에 성공할 수 있는 지원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